

Economy



반도체 날고, 車 달리고… 11월 수출 610억弗 역대 최고

반도체 39% 늘어 월간 실적 경신
자동차 64.1억 달러로 14% 증가
美 관세 여파 석화·철강 등은 부진
연간 7000억弗 목표 달성 청신호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도 선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충격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38.6% 증가한 172억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디램 고정가격이 지난 해 4분기 1.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까지 뛰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커졌다.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 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설·파업으로 선적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대 기록 경신까지 48억3000만 달러만 남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SSD, 바이오 수출도 고른 증기를 보였다. 컴퓨터는 AI 서버 수요로 인한 대용량 SSD 증가로 4% 증가했고, 이차전지는 ESS·EV 배터리 동반 증가로 2.2%, 무선통신기기도 풀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1.6% 늘었다.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주력 품목도 고르게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철강·선박 등은 부진했다. 철강은 미국 관세 50% 부과와 단가 회복 지역에 따라 16% 감소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가 겹치며 14.1% 줄었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선박 선가는 높지만 인도 일정 영향으로 17.8% 감소했고 섬유(-10.8%), 가전(-2.4%)도 수요 부진과 미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과 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처음 120억 달러를 상회한 12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0.6%)와 무선통신기기(11.1%) 수출이 증가하며 석유화학(-17.1%)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3% 증가한 104억2000만 달러다.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54.6%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대중동 수출 역시 일반기계와 석유제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서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홍보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백은별 기부자,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뉴스

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33.1% 증가한 21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CSI(+25.5%)와 인도(+1.8%)로의 수출도 플러스였다.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을 받은 철강과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21억7000만 달러, +11.3%)와 반도체(11억3000만 달러, +39.3%)가 선전하며 0.2% 감소에 그친 10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SK, '차세대 HBM' 기술 경쟁 점화

삼성, HBM3E·HBM4 공급 확대
SK하이닉스, 480조 투자 승부수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들어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HBM)인 HBM3E의 엔비디아 향 공급을 본격화하며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에 장기간 HBM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해 온 SK하이닉스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양사는 HBM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 및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개발 통합 조직을 신설하고 산하에 HBM 개발팀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차세대 HBM 제품 개발에서 삼성전자가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기존 HBM 개발팀을 이끌던 손영수 부사장이 해당 설계팀의 팀장으로서 차세대 HBM 개발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팝(공장)을 2027년 가동하며 HBM4, HBM4E 등 차세대 제품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1개 팝당 12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4개 팝에 총 480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양사의 연구개발비 증가세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누계 연구개발비는 26조 8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7464억원) 대비 8.6% 상승하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또한 3분기 누계 연구개발비가 4조 647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5584억원) 대비 3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1c(10나노급 6세대) 공정 기반의 DRAM과 4nm(나노미터·1nm=10억분의 1m)로직 디이터를 채택한 HBM4 설계가 경쟁사 대비 속도와 저력 소모량 등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초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던 출하 일정을 내년 2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계엄 명분으로 전쟁날 빼… 내란행 위 방지하면 언젠가 재발”
▲장동혁 “李 정부 잘못에 목소리 내야” 조국 “국 우 세력과 절연해달라”

/사진 뉴시스

▲법사위 소위, 내란전당재판부 설치·법외곡죄 더 논의키로
▲여객기 참사 유가족 “국토부 신뢰 못 해… 공청회·중간발표 중단해야”

▲오세훈 “특검, 민주당 하명에 기소… 진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최동석 인사처장 “계엄 동조 공무원 많아… 국정 동참 가치 없어”

정기선 “K-조선 새 역사 시작”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방산 매출 10배 성장 목표 제시
친환경·디지털 기술 초격차 추진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기선 회장은 1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자국 내 1·2위 대형 조선사 합병을 잇따라 마무리하면서 세계 선박 건조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은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를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는 이번 통합이 미국 MASA(A마스가) 프로젝트와 방산 분야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이 축적해온 함정 건조 기술에 HD현대미포가 보유한 함정 건조에 적합한 도크·설비·인력을 더해 군수지원함·잠수함·쇄빙선·특수목적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방산 부문 매출을 현재의 약 10배 수준인 1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통합 HD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을 37조 원까지 확대해 세계 1위 조선사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차세대 신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양사의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결집해 그동안 주로 중형선 위주로 적용해 온 신기술을 대형선으로 확대하고, 친환경·고도화 선박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탈탄소 규제 강화와 에너지 효율 요구 증대에 발맞춰 친환경 연료 주선, 에너지 절감형 선형 설계 등 신기술을 선제 적용해 미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합병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윤곽이 굳어졌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합병 계약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존속법인은 HD현대미포이며 HD현대미포 주주에게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비율은 HD현대미포 1주당 HD현대중공업 0.4059146주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피해자 10만원 배상 집단소송… 업계, 긴급점검 등 ‘비상령’

쿠팡發 ‘보안 쇼크’

네이버 소송카페 1만2600명 가입
오픈채팅방 인원 4300여명 몰려
쿠팡 ‘퇴사자 권한 말소’ 생점될 듯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정

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소비자들과 연대해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보이고 있다. 사태가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에선 보안 유출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보안 비상령이 떨어졌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 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정보 기술에 1조9171억원,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만 89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삼성전자, KT에 이어 국내 3위 규모다. 최근 4년간 쏟아부은 돈만 2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쿠팡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접근해 3370만 명의 정보를 빼돌리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타임라인

- 6월 24일 해커, 해외 서버 경유해 쿠팡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시작 (중국인 국적의 쿠팡 전직원 소행 추정)
- ~11월 17일 쿠팡 측, 데이터 탈취 감지 실패
- 11월 18일 쿠팡, 개인정보 4500개 계정 노출 사실 인지. 경찰청 신고
- 11월 29일 총 3370만개 계정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내역 유출 파악
- 11월 30일 박대준 쿠팡 대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서 대국민 사과 정부, 긴급 회의 소집 및 민관합동 조사단 가동
- 12월 1일 피해자 및 소송인단 모집 시작 국민의힘, 진상 규명·국정조사 요구

그래픽/정민주 기자

‘안전조치 의무’ 해석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AI테크 그룹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과거 판례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해킹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십 개의 IP를 통해 수백 회 넘게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속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역시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다. 쿠팡이 해당 보안 조치를 취했느냐가 재판의 생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의 불똥은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다. G마켓은 주말 내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SSG닷컴은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 속 글로벌 합작이 늘어나면서, 고객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안 실패는 브랜드 신뢰 손실과 소비자 이탈이라는 무형의 비용을 초래한다”며 “쿠팡의 사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해도 이미 늦은 ‘수습 불가’ 단계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태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개정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38조2988억원)을 고려하면 이론상 1조 단위 과징금도 가능하다. 최근 SK텔레콤은 2324만명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매출액의 1%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3370만 명 정보 유출은 역대급 참사”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배경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고, 정무위원회(정무위)는 3일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장과 박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투자 금액이 많다고 보안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것보다 비용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퇴사자 계정 관리 등 기본을 지키는 ‘보안 거버넌스’가 무너진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이전 KT, 롯데카드 유출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한 탓에 공격이 가능해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오후 1시 기준 네이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카페 가입자는 1만2600명을 넘어섰으며, 오

픈채팅방 인원은 4300여명이 몰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5개월 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기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승패가 법원의

“소비자 보호 사전예방 최우선… 감독 총괄본부 신설”

이찬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조직운영·인사·감독·검사 등 주요업무 소비자 중심 재설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본부를 신설해 각 업권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조직 운영, 인사, 감독 및 검사 등 주요 업무들을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가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된 경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성으로 각 권역(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을 담당하는 임

원의 책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검사 등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원 업무의 활용 기능이 대폭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따로 분리해 원장 직속 총괄 본부로 격상한 것이다. 총괄본부의 본부장은 부원장보가 맡고, 조직도 상 최선임 본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금소처 시스템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 구제를 중심으로 금융 소

비자 보호가 작동되는 경향이 강한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예방까지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품 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의 과정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제조 영역의 책임과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해 나가고 있다”며 “업권별로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총괄 감독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감독원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금융회사들도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해 ‘가족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만들지 않고, 고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제도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조직 개편은 연말쯤 갈 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신설되는 조직도 있고, 국정 과제로 인해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는 영역들도 일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개편안이 진행 중”이라며 “조직 개편안과 인사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인사는 현재 인사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배터리 소재社, 유럽 공급망 주도권 잡는다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공장 준공
삼성SDI·SK온 등도 생산기지 운영

유럽의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극재·동박 등 핵심 소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물류·품질·규제 부담을 동시에 낮추고, 유럽 배터리 생태계 내에서 주도권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유럽연합(EU) 신차 중 배터리전기차(BEV) 비중은 16.4%로 1년 전(13.2%)보다 3.2%포인

트(p) 증가했다. 반면 가솔린·디젤차 비중은 같은 기간 46.3%에서 36.6%로 9.7%p 감소했다. 전기차 전환에 통계로 확인되면서 공급망 규제와 맞물려 배터리 소재를 유럽 안에서 조달·가공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는 이미 삼성SDI·SK온·CATL 등 글로벌 이차전지 셀 기업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이 다수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셀·완성차 공장이 속속 들어선 데 비해 소재 부문은 일부 전해질·동박 기업만 먼저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동박 업체들이 실적 부진

을 돌파하기 위해 유럽·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에서 직접 생산하면 물류·배송비를 줄이고,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방지 등 까다로운 품질 관리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강화되는 유럽 규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맞춰 에코프로는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산 5만4000톤(전기차 약 60만대 분)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 양극재 생산(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 용 산소·질소 공급(에코프로에이피)을 한 부지 내에 집적한 패키지형 공급 거점이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지난달 무역수지 97.3만억 ‘흑자’ 기록

» 1년 ‘반도체 날고, 車 달리고…’서 계속

EU로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품목이 호실적을 보였으나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000만달러를,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6.8% 감소한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18.4%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이 6.4%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

지는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한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7억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의 핵심죽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검토… 高환율 대응 나서

구윤철 부총리, 환율 안정 논의
연간 650억 원 외환스와프 올해 만료
수출기업 외환보유 규모 등 점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마련키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0.6원)보다 0.7원 내린 1469.9 원에 주간 거래를 마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도로 맺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일부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이 계약 하에 해외자산 매입 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국가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는 이점이 있어,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측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최근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반등하며 1469.9원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전일대비 0.7원 내렸으나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24일 1400선을 넘어섰고, 11월7일부터는 1450선 위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수의성과 외환 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가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I전환, 새 성장동력… 세계경제 중저속성장 '뉴노멀화'"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 전망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 예상
내년 성장률 전망 3.0%로 상승"

세계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불확실성 속에도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세계 경제가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화'를 겪을 것이라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 현황을 짚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 분석 실장과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글로벌경제부장이 주제 강연을 맡았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관세의 파급 효과는 당초 예측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고,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상은 관

세 여파가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추진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폭은 연초 예상보다는 다소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세계 성장을 전망률을 끌어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2026년에도 세계경제는 불안한 성장 동력 속에 중저속 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 실장은 "세계경제 동향 및 2026년 전망" 강연에서 "2025년 세계 경제는 관세발(發) 불안에 적응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는 최저

수준을 지속 중이지만, 하반기에는 AI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상호관세 직후 2.7%였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3%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교역은 연초의 우려보다 양호하지만, 4분기 들어 위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도 부진하고 급격한 무역 위축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4분기에는 높은 미국의 실효 관세 부담과 밀어내기 수출 종료로 글로벌 무역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둔화세를 지속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제한되며 중·저속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AI와 반도체의 수요 및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종전의 2.5%에서 3.

0%까지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기폭 요인이 발생한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재부각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는 가운데, 금리는 중간 지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미국이 3회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금리 동결, 일본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년 세계 무역은 관세 가격 전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장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무역량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의 과잉생산 억제, 전통기업의 구조조정 등은 무역 활성화를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제금융정책자문위'
경제부총리 직속 출범

"위기시 외채상환 요구 대응
견고한 대외 안전판 갖춰"

경제부총리 직속의 민간자문위원회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 자문위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 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 더해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 발족과 관련해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및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또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국내유입) 영업' 확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대 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신용대출 잔액 1.5조로 8315억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이다. 은행의 총량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 1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1조 5125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6월 6조 7536억 원 ▲7월 4조 1386 ▲8월 3조 9251억 원 ▲9월 1조 1964억 원 ▲10월 2조 5270억 원으로 줄고 있다. 9월보다 10월 증가 폭이 큰 것은 정부대책 이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611조 2857억 원으로 전달보다 6396억 원 늘었다. 전달 증가폭(1조 6113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관련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6월 5조 7634억 원 증가한 주택관련 대출은 7월 4조 5452억 원으로 줄었다. 10월 1조 6612억 원 증가했던 주택관련

대출은 11월 6396억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의 금융유동성을 차단한데 이어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묶은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5646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8315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7월 4333억 원, 8월 1103억 원, 9월 2711억 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9151억 원, 10월 8315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기존에 개설됐던 유동성 대출(마이너스통

장)의 사용액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이라며 "사용된 금액의 정확한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과 주택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사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에는 은행의 총량규제에 따라 은행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 비대면, 24일 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우리은행은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한 달 10억 원을 제한 중이다. 2금융권은 수협과 신협도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S그룹, 美 전력 인프라 4조 베텁… 전선·변압기 투자 가속

해저케이블공장 착공으로 생산력 증대
데이터센터 전력증가 초고압 수주 확대
에스솔루션즈 상장 추진 사업 강화
AI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LS그룹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에 발맞춰 전선·전력설비 투자를 대폭 강화하며 북미 전력 인프라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인프라 분야에만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며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미국 내 수주 확대와 생산계획 증가에 맞춰 지난 달 25일 이사회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자주사 LS가 보통주 169만4915주를 주당 8만8500원에 인수하며 마련된 자금은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 공장은 베지니아주 체사피크 엘리자베스강 유역에



LS전선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의 미국 베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조감도. /LS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시설로, 생산설비와 초고층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전용 부두까지 갖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총 75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으로, 2023년 의사결정 이후 부지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근 착

공에 돌입했다. 이번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을 선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미국 현지에서 배전 공장을 가동 중인 LS일렉트릭도 초고압 변압기 수주

가 이어지며 북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민간 전력 유 텔리티와 4598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설비는 동남부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기존 115kV·354kV 중심에서 525kV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며 현지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LS그룹은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전력설비 수요 증가에 맞춰 원선 제조 계열사 에스솔루션즈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다. 에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11개국에 생산 거점을 둔 에스솔루션즈는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I 기반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그룹 실적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애플 앤가이드에 따르면 자주사(주)LS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439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망치가 실제로 집계될 경우 지난해(1조87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선·전력기기 중심의 북미 사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계열사 실적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해저 전력케이블 투자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LS그룹처럼 생산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기업들이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IoT 폭증이 만든 '저전력 반도체' 봄… MCU·센서 수요 급부상

IoT 확대로 성숙공정 수요 확대
MCU·센서 중심 시장 성장 지속
삼성·SK, 저전력 제품 전략 강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와 센서, 저용량 메모리 등 소형 반도체 중심의 신규 수요 층이 부상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인공지능(AI) 서버 중심의 고성능 메모리 사이클과는 별도로 성숙공정 기반 디바이스 수요가 독립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홈 가전 산업용 설비 웨어러블을 중심으로 IoT 디



바이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반도체 산업 소비가 기존 모바일·PC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전력 무선통신칩과 센서 모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IoT 기기 규모가 수십억 대 단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oT 애널리스틱스는 2024년 전 세계 연결된 IoT 기기 수를 185억 개로 추산하며 2025년 211억 개(14% 증가)를 거쳐 2030년 390억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IoT 연결의 상당수가 Wi-Fi·블루투스·셀룰러 IoT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저전력 반도체 중심의 수요 구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IoT 단말 확대는 관련 반도체 시장의 외연도 넓히고 있다. 센서·MCU·무선칩 등 다품종 저전력 칩 위주로 구성된 IoT 기기의 특성상 생산·투자 층이 선단 미세공정보다는 성숙공정 기반 제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IoT용 칩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2024~2029년 기준 두 자릿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IoT 전용 MCU 시장은 같은 기간 연 15% 안팎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저전력·성숙공정 기반 수요 변화에 맞춘 제품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8나노 FD-SOI 공정

에서 eMRAM을 양산하며 MCU·IoT·AI용 저전력 임베디드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LPDDR5X·LPDDR5T 등 차세대 저전력 모바일 DRAM을 선보여 스마트폰과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저전력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IoT 기기 확산은 단순히 단말 수 증가를 넘어 생산 생태계를 성숙공정 중심으로 일부 끌어당기고 있다"며 "고성능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는 외중에도 저전력·아날로그·센서 등 관련 수요 역시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 1면 '삼성·SK, 차세대…' 서 계속

카톡 논란 정리되자 AI전환 속도… '정신아 체제' 본격 시동

사법 리스크 완화로 경영 환경 안정
AI서비스 확산으로 플랫폼 동력 강화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와 카카오톡 개편 논란 등 주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정신아 대표 체제의 인공지능(AI)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과 서비스 통계가 잇따라 공개되며 카카오의 경영 환경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이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검찰의 압박성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 즉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2심 재판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을 통해 카카오 경영진의 혐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한 차례 정리된 만큼 법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완화된 상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카카오톡을 둘러싼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보였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해 8월 4819만명에서 10월 4797만명으로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통계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제기된 이용자 이탈 우려가 실제와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네이트온의 MAU가 일시 증가했지만 전체 이용자 수는 약 55만명에 불과해 카카오톡과는 수백만명 단위의 격차를 보였다.

카카오는 개편 이후 제기된 사용자의 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기준 '친구 목록' 기반 첫 화면을 복원하는 업데이트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핵심 기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무 성과도 공식 수치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3분기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광고 매출 증가와 금융 자회사 실적 개선이 실적 반등을 견인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AI 사업에서는 이용 지표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챗GPT 포 카카오'를 출시해 카카오톡 상단에 챗GPT 기능을 배치했다. 대화 중 질문·검색·답변 공유를 즉시 수행하도록 설계된 해당 기능은 출시 10일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기록했다. 플랫폼 내 AI 기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성과다.

카카오는 AI 기반 일정 추천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올해 1분기 중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대화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열린 이프 카카오 2025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맥락을 분석해 일정 생성과 추천을 자동화하며, 카카오톡 내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기반 재정비를 마쳤다"며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적 리스크와 서비스 논란이 통계와 판결을 통해 정리되면서, 카카오는 올해 AI·플랫폼 중심의 전략 추진에 한층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HBM4, 전력효율 40% ↑

I/O·대역폭 2배 확대 적용

SK하이닉스의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E 대비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끌어올리는 연구개발 성과를 거뒀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4를 최초로 납품하는 계약을 확보한 바 있다.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전략을 택한 점도 눈길을 끈다. HBM을 구성하는 개별 DRAM 칩은 '코어 다이'라고 불리며 이 가운데 가장 아래층에 있는 칩을 '베이스 다이'로 구분한다.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 4nm 공정을 이용해 HBM4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SK하이닉스는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세상을 바꾸는 금융

대한민국 국민 모두
KB의 소중한 소비자입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앞으로 금융을 경험하게 될 소비자부터
이미, 금융을 누리고 있는 소비자까지나이는 모두 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KB가 국민 곁에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Korea Basic
KB금융그룹

KB의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소비자의 권리

- 최우선 소비자 이익을 위한 상품·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수립
- 소비자의 목소리가 상시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
- 금융취약계층 대상 등등한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소비자에 대한 책임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 금융회사 책임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 금융소비자 중심 내규 운영

KB 금융그룹

스테이블 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당정협의회서 민주당·금융위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논의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공유 요청도 규제해소, 원화코인 필요성 공감대

당정이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은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을 만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쟁점은 발행 주체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층과 조율을 다 끝낸 것 같고 법안은 다 성안이 돼 있다”며 “국회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 층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

강간사는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당TF와 토론회까지 거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정부 층에 빼대가 담긴 안을 쥐야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

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 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강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도입해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과 배드뱅크(섀도약기금)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시간 끌면 피해는 국민에게” vs 野 “예산 대규모 삭감 필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day
與 “합의처리 설득 최선 다할 것”
野 “與 일방처리 수순 의구심 들어”
처리시한 막판까지 거센 신경전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여야 회동 시작 20분 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양측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하루 전까지도 거센 신경전을 보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 30일) 저녁 8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만나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 부분을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저녁 회동이 어렵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무산됐다”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만나고 해서 갔는데, 정부 층에서 구윤철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가 30분 안에 올 수 있

다고 해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의 불참석을 ‘고의적 태업’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여야 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협

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짜인 계획대로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후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구윤철 부총리까지 참석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농어민기본소득,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불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 합주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 중 쟁점이 큰 법인세 모금 과표구간 1% 인상 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이상 기업에 대한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1% 부과안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11 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 시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 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12·3 내란사태 1년’… 李 대통령, 연말 국정초점 ‘내치’

내일 특별담화·외신 기자회견 예정
이달 내 청와대 이전 마무리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계기로 연말 국정 초점을 ‘내치’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내로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막을 내리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3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별담화에는 12·3 내란 사태를 평화롭게 극복해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는 종부리에 맞선 합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라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전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

란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등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 가량 생방송 되며,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오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청와대 이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연내 이전’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시행된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자율주행 솔루션 |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IVI 솔루션 |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 E-코너 시스템 |

HYUNDAI
MOBIS

잇단 해킹사고에… 제2금융권, AI 보안체계 전면 재정비

카드·가상자산 해킹 피해 속출
금융권 전반 보안 위기감 고조
AI 기반 FDS·콜봇 도입 확대
상호금융도 사고예방 체계 구축

카드사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이커머스까지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금융사기 AI 기술을 도입하며 금융사기 사전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SK텔레콤의 AI 보안 플랫폼인 'FAME'를 신한카드 자체 FDS와 연동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정보 및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고객정보 보안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스

FAME는 통신망에서 탐지된 ▲의심 통화 ▲비정상 인터넷 주소(URL) ▲악성 애플리케이션 접근 정보 ▲카드 거래 데이터 등을 모두 분석하는 SK의 보안 플랫폼이다. 통화,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경고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KB국민카드 역시 FDS에 AI 콜봇 시스템을 정식 도입했다. AI 콜봇은 장기 카드대출 고객과 같이 보이스피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빠른 사후 조치를 위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 사고보상 접수로 자동연결 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사기 악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롯데카드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피해액 386억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터졌다. 카드사부터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339건으로 전년 동기(1만 522건) 대비 22.75% 증가했다.

상호금융권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거래 안전망을 강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일선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 자체 보안 매체 사용 거래가 원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도 약 100억원을 투입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평가 모델을 만들고,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며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무단 이체, 카드 위변조,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사의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나누는 제도다.

/안재선 기자 wots4187@metroseoul.co.kr

반도체 중심 성장…韓경제 '단일엔진' 위험

한은 "IT 사이클 따라 경기 출렁 내년 반도체 제외 맨 성장 1.4%"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1.8%로 제시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IT 경기 회복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를 떼어내면 성장률은 1.4% 수준으로, '단일엔진 성장' 구조가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0%, 1.8%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 1.6%)보다 각각 0.1%포인트(p), 0.2%p 상향한 수치다. 2027년 성장률도 1.9%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재정 확대, 빙한 관광객 증가 등이 성장 상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 1.8%는 IT와 반도체 사이클에 크게 의존한 수치"라며 "이 부문을 제외해 내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성장률은 약 1.4%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2023년 실질 성장률 1.4%, 올해 전망치 1.0%에 이어 내년에도 비(非)IT 부문

만 놓고 보면 1%대 초반에 머물 수 있다 는 뜻이다. 잠재성장률(1%대 후반 안팎)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한은이 이번 전망에서 제시한 반도체 시나리오 분석은 이런 우려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AI 확산으로 고성능·범용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보류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율이 올해 10%대 중반에 근접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은 기본전망(1.8%, 1.9%)보다 각각 0.2%p 0.3%p 높아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두 해 모두 0.1%p씩 더 올라간다.

반대로 AI 투자가 과열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수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2027년에는 물량 증가율이 0% 수준까지 떨어지는 '낙관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됐다. 이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은 기본전망보다 각각 0.1%p, 0.3%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는 2027년에 0.1%p 낮아진다. 성장률과 물가 모두가 반도체 경기의 낙관·비관 경로에 따라 동시에 출렁이는 구조를 보여

준 셈이다.

반도체와 교역조건 개선 덕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비IT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만드는 내수의 '자기 힘'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의존형 회복'이 통화정책의 선택지도 동시에 좁힌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개선되지만, 고환율·고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률과 증시·고용에 충격이 번지는데, 이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과감한 인하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1.8%로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IT나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많다"며 "이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비(非)IT 성장률은 내부적으로 약 1.4%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밀돌아, 실물경제 상승률에도 반도체 중심의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하나 DNA가 미래 100년 이을 원동력"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행사
함영주 "금융 본질은 모두의 행복"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의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 금융그룹 속에 내재화 된 '하나의 DNA'가 그룹의 미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에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계신 하나님(임직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 간 금융그룹 속에 내재화 된 하나의 DNA는 그룹의 미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인 손님, 주주,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DL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대림 대표이사에 정인 선임

DL그룹은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겹증된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박상신
DL이앤씨 부회장
정인
대림 대표이사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

해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부회장은 최근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적 정상화, 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며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주)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정은 DL이앤씨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주)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 막바지 밀어내기… 전국 4만가구 공급

분양시장이 올해 막바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내외적 상황으로 많은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은 다소 평이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58곳, 3만 985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 중 2만 588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권역별로 일반분양은 수도권 1만 7756가구(69%), 지방 8131가구(3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 2236가구(47%), 인천 5353가구(21%), 울산 2628

가구(10%), 충남 1929가구(7%), 세종 1071가구(5%)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 ▲아크로드 서초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 등이 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입지다. 경기에서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수지자이 애디시온 ▲더샵 분당센트로 등이,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호반써밋 인천검단 III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KDDX, 2년 만에 사업자 선정될까

〈한국형 차기 구축함〉
‘경쟁입찰 vs 상생안’ 결론 앞둬

오는 4일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경쟁입찰, 유력안으로 꼽히지만 사업 일정 더 늦어질 가능성 커 상생안, 지연 최소화 대신 책임 논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2년째 표류 끝에 ‘경쟁입찰’과 ‘상생안(공동수행)’ 두 가지 방식만을 놓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 이자 향후 20년 해군 전력 구조를 좌우 할 핵심 사업인 만큼, 오는 4일 열릴 분과위원회의 판단에 업계·군·정치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안건을 상정한다. 방사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 KDDX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민간위원·정치권의 반대로 의결 되지 못했다.

KDDX는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이 배제되면서 선택지는 경쟁입찰과 상생안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은 절차적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과 정치권에서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한화오션 역시 HD현대중공업의 보안별 점을 근거로 공정한 경쟁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다만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평가 및 검증 절차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미 2년 지연된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보안감점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인 상황이다.

상생안은 두 업체가 역할을 나눠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초기 방사청 내부에서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기술·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담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부담이 큰 방식이다. 구축함 건조 특성상 시스템 통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둘러싼 양사의 입장 차이도 분과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자동으로 상세설계·건조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는 공정경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경쟁입찰이 유일한 공정한 해법이라고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역시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체계 이해도와 기술 연속성이 확보돼 있다”며 사업 안정성과 일정 준수를 위해 단독 수행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두 안 모두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 속 이번 분과위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판단 권한이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주위)로 넘어가게 된다.

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지연 우려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KDDX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DDX는 단순한 대형 사업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구조와 해군 전력 체계를 동시에 재편할 이정표”라며 “어떤 결론이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 美서 초음파 진단기기 ‘R20’ 첫선

‘북미영상의학회 2025’ 참여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상 진단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인 차세대 영상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은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5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R20’은 삼성이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영상의학과 전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다.

R20의 핵심 기술은 서드 하모닉이다. 기본 신호보다 세 배 높은 주파수를 활용해 기존 하모닉 대비 체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훨씬 선명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딥러닝 기반 실시간 AI 보조 기능 라이브 리버어시스트와 라이브 브레스트어시스트가 R20에 탑재돼 간·유방 등의 주요 부위에서 관심 병변 영역을 실시간 탐지하고 시각화한다.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컨트롤 패널을 직관적으로 재배열하고 장비 이동성을 강화했으며, 굵기와 무게를 각각 50%, 66% 줄인 플렉스 케이블은 균육 사용량을 약 30% 감소시켜 의

료진의 피로도를 줄였다.

삼성의 X-ray는 AI 기반 저선량 구현을 핵심 가치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GM85의 애너토미 클리핑 체크(ACC)와 GC85A Visio n+의 프로토콜 체크는 활영 부위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활영 영역을 실시간 겸증해 재활영 가능성을 낮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저선량 활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체험존에 전시된 LLD(Long Length D etector) 디텍터 ‘L8643-AWV’는 넓거나 긴 신체 영역을 한 번에 활영해 검사 속도를 높이고 활영 횟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한다.

삼성은 저선량 조건에서도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미국 시장에 출시된 삼성의 클리어 NR(Clear Noise Reduction)은 AI 기반 노이즈 저감 기술로 에스뷰(S-Vue™) 영상처리 엔진에 AI를 적용해 영상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구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는 “삼성은 환자 특성에 따른 화질 편차 등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제 해결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 건설 예정 전기로 제철소 모형 공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공개

현대제철은 오는 4~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5’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WHE 2025는 전 세계 수소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글로벌 수소 산업 행사다. 올해부터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가 통합돼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현대제철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구체적인 조감도와 수소환원제철로의 중장기 기술로 드맵을 공개한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 건설 예정 전기로 제철소 모형 공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공개

현대제철은 오는 4~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5’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WHE 2025는 전 세계 수소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글로벌 수소 산업 행사다. 올해부터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가 통합돼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현대제철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구체적인 조감도와 수소환원제철로의 중장기 기술로 드맵을 공개한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100분기 연속 흑자 이어가 ‘합성고무’로 실적 차별화

금호석유화학

3분기 영업이익 612억… 61.1%↑
전기차 타이어, 장갑원료 수요 꾸준
이익회복 지속… 내년 전망도 장밋빛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2공장.

국산 라텍스 장갑 관세가 내년 최대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요 증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금호석유화학의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금호석유화학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3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BD와 스타이렌 모노머(SM)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합성고무 중심 사업의 이익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이다.

반면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영업손실 1326억 원을 기록했고, 한화솔루션은 같은 기간 7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범용 기초제품 시장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석화사들이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공급과잉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고부가 합성고무 중심의 제품 비중을 키우며 업황변동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며 “SBR 증설과 NB라텍스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 美서 초음파 진단기기 ‘R20’ 첫선

‘북미영상의학회 2025’ 참여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상 진단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인 차세대 영상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은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5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R20’은 삼성이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영상의학과 전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다.

R20의 핵심 기술은 서드 하모닉이다. 기본 신호보다 세 배 높은 주파수를 활용해 기존 하모닉 대비 체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훨씬 선명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딥러닝 기반 실시간 AI 보조 기능 라이브 리버어시스트와 라이브 브레스트어시스트가 R20에 탑재돼 간·유방 등의 주요 부위에서 관심 병변 영역을 실시간 탐지하고 시각화한다.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컨트롤 패널을 직관적으로 재배열하고 장비 이동성을 강화했으며, 굵기와 무게를 각각 50%, 66% 줄인 플렉스 케이블은 균육 사용량을 약 30% 감소시켜 의

료진의 피로도를 줄였다.

삼성의 X-ray는 AI 기반 저선량 구현을 핵심 가치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GM85의 애너토미 클리핑 체크(ACC)와 GC85A Visio n+의 프로토콜 체크는 활영 부위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활영 영역을 실시간 겸증해 재활영 가능성을 낮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저선량 활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체험존에 전시된 LLD(Long Length D etector) 디텍터 ‘L8643-AWV’는 넓거나 긴 신체 영역을 한 번에 활영해 검사 속도를 높이고 활영 횟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한다.

삼성은 저선량 조건에서도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미국 시장에 출시된 삼성의 클리어 NR(Clear Noise Reduction)은 AI 기반 노이즈 저감 기술로 에스뷰(S-Vue™) 영상처리 엔진에 AI를 적용해 영상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구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는 “삼성은 환자 특성에 따른 화질 편차 등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제 해결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韓 수소산업 경쟁력 알린다

현대차그룹, 韓 수소산업 경쟁력 알린다

오늘부터 ‘수소위원회 CEO 서밋’
향후 5년간 핵심 과제 추진 논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수소위원회 CEO 서밋(Summit)’을 통해 한국의 수소 산업 경쟁력 알리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수소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인 포부를 가진 기업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수소위원회에는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공동 의장사로서 전 세계 수소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회원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소위원회 CEO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CEO 서밋에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100개 회원사의 CEO와 고위 임원진 및 한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CEO 서밋에서는 글로벌 수소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업계의 수소 기술에 대한 혁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공동의 의지를 강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중소기업계 “네거티브 전환” 촉구… “규제합리화 끝까지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

김 총리에 ‘규제합리화 100선’ 전달 정부·中企, 규제대화 통해 의견교환 김 총리 “경제 고비 넘어 규제 논의” 업계, 100선 중 7건 현장서 구두 건의 김기문 “정부 말기 규제개혁 약화”

법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5 중소기업이 뽑은 규제 합리화 100선’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깜짝 놀란지도 한해가 됐고 그동안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아서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될 때”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총리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에선 김 총리를 비롯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숙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김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민석 총리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의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동력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 만큼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고 100건의 현장 규제도 잘 검토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를 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혁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번엔 합리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규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초기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적으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달라는 말씀을 아주 중

하게 관심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푸넓게 수렴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화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에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이상→2개월)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해 중

소기업 부담 경감(생산원가, 임대료 절감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해 신생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전국조합 8000만→4000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000만→2000만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총리에게 현장에서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화와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

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을 건의했다. 100건 중 나머지 93건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업계에 회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와의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전국 17곳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

중기부, 중기중앙회, 벤처협 등 운영 법무·세무·특허 등 창업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가 등 1600명 자문단도

민관이 힘을 합쳐 창업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경기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 운영에는 민간에선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벤처기업 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동참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 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그동안 중기부는 센터 구축을 위해

10회에 걸친 창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또 협단체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 대기업 토직인력,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도 구성했다.

자문단에 참여하는 노타 채명수 대표는 창업 초기 직업 겪었던 애로를 공감하며 “단순한 조언을 넘어 선배 창업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패까지 솔직히 나누며 후배 창업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행사에서 참여 민

간 협력단체들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기존 기업·산업과 스타트업간 접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각자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원스톱 센터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화에어로, MENA 시장 공략 본격화

EDEX서 K9·천무 통합 솔루션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아프리카(MENA) 지역을 겨냥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방산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협력국 이집트에서 K9 자주포 패키지가 2026년 전력화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4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행사로 꼽힌다.

전시관 중앙에는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의 실물 유도탄이 자리했다. 최대 사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달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시회)’ 한화 부스에 전시된 ‘K9 자주포’ 패키지 모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 천무 2.0 대형유도탄(ASBM)도 공개됐다.

2022년 이집트와 약 2조원 규모로 체결된 K9 자주포 패키지 모형도 전시됐다. 패키지에는 이집트 해군의 해안방어용으로 최초 배치되는 K9을 비롯해 155mm 포탄의 명중률을 높이는 탄도수정판과 정밀유도포탄이 포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

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전선 업계 최초로 ‘해저케이블’ 분야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의 안정화를 주도하는 기업을 선정해 재정·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선정의 배경으로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한 점

등을 꼽았다.

해저케이블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해상풍력 발전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은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약 14GW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한전선의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확보는 해저케이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주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대한전선이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안정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역량 확보를 통해 해저케이블 공급망 강화와 국가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로 업종추천·운영전략 맞춤 지원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경영 효율 향상

서비스는 기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영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며, 월평균 73만 5000건의 플랫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확산과 높은 현장 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내년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구축과 데이터·인프라·정비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소상공인 365 내에서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평균 매출 증가와 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 선도

해상풍력 확대 생산·시공 역량 강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한전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전선 업계 최초로 ‘해저케이블’ 분야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의 안정화를 주도하는 기업을 선정해 재정·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선정의 배경으로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한 점

등을 꼽았다.

해저케이블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해상풍력 발전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은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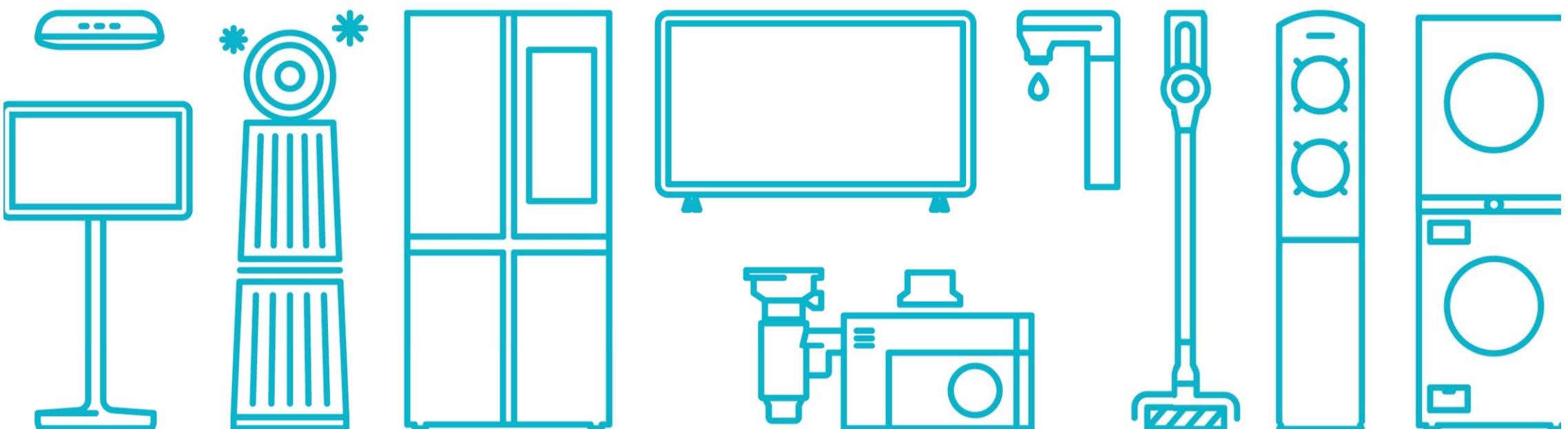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약 14GW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한전선의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확보는 해저케이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주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대한전선이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안정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역량 확보를 통해 해저케이블 공급망 강화와 국가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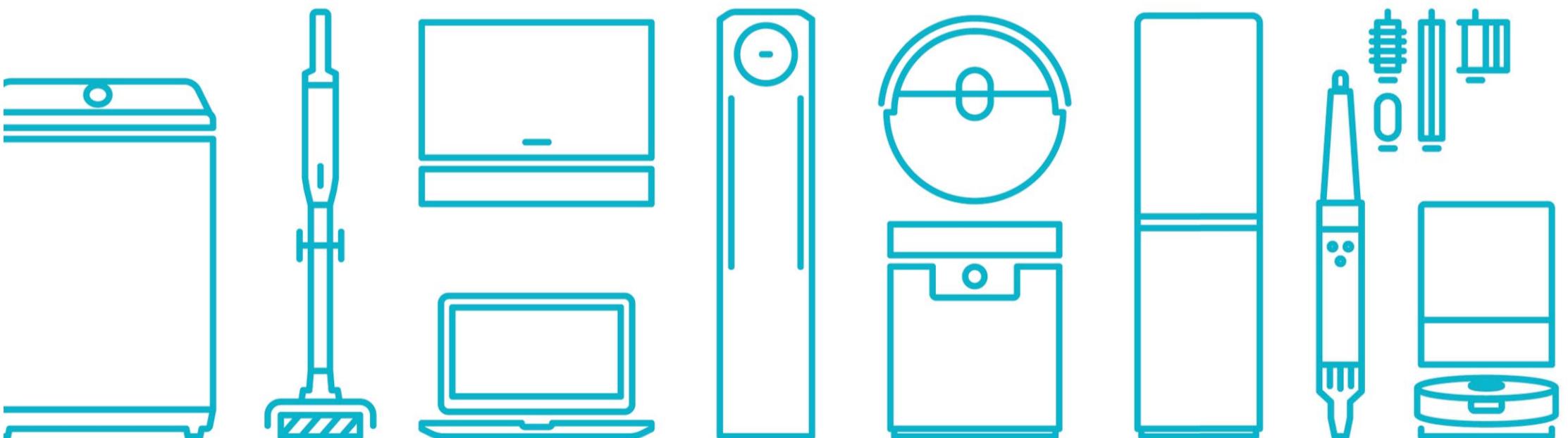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LG유플러스, 2026 조직개편 단행

AX·통신 본업강화 '투트랙' 가동

AI 중심 미래전략 실행 기반 마련
상품개발체계 고도화로 혁신 촉진
모바일·홈·B2B 경쟁력 전면강화
네트워크·데이터 중심 동력 확보

LG유플러스가 2026년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인공지능 전환(AX)을 그룹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고정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전략·AX 조직을 옮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상품 중심 협업 체계로 내부 구조를 재정비해 AX 성과 확대와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흥법식 사장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이번 개편은 LG그룹 차원의 AX 기조와 보폭을 맞춘 구조적 조치다. 기존에 신설했던 'AI 애이전트 추진 그룹'을 유지한 채, 미래 사업을 이끌던 핵심 인재들을 현 위치에 두면서도 CEO 직속으로 전략·AX 담당을 배치해 조직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AX 부문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사업 조직'과 '차별화된 상품 출시를 담당하는 상품 조직'으로 재편됐다. CTO 산하 개발 조직도 주요 사업별 전담 구조로 개편돼, 서비스 개발과 상품 출시 과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체제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LG유플러스

갖췄다.

모바일, 홈(IPTV·인터넷), B2B 등 통신 본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비됐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디지털 사업과 상품 기획을 분리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홈·B2B 사업에서도 각 영역의 상품 조직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존 CTO 직속 '애이전트/플랫폼 개발랩'은 'AX테크플랫폼/AX서비스 개발랩'으로 개편됐다. AX테크플랫폼개발그룹장은 이상엽 CTO가 맡고, 정성권 IT·플랫폼빌드그룹장이 AX서비스 개발그룹장을 맡는다. 정 그룹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NW부문 산하에는 'NW AX그룹'이 신설된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독립된 성장축으로 삼아 AI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도다.

엔터프라이즈부문(AICC·AIDC 등)은 권용현 부문장이 계속 이끌며,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확대에 집중한다. 권 부문장은 이번 개편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조직은 폐지되고 콘텐츠 기능은 유관부서로 이관된다. 자체 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X+U'는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전사 차원에서는 부서 통합을 확대하는 '대팀제'를 적용해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내부 전반에 'AI 워크 에이전트'를 도입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이 고객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씨에스원파트 대표에는 문영순 경영지원담당이 임명됐고, 미디어로그 대표에는 송대원 CTO 기술개발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이원희 LG유플러스 인사담당 상무는 "이번 개편은 AX 사업의 시기적 성과와 통신 본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에이닷 전화에 'AI 보이스피싱 탐지' 추가

SK텔레콤, 통화 보안기능 강화
의심 키워드·대화 패턴 등 분석
팝업·알림음·진동으로 즉시 안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 '에이닷 전화'에 통화 보안 기능 'AI 보이스피싱 탐지'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통화 중 대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바로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다.

AI 모델은 의심 키워드와 대화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통화 중 '의심' 또는 '위험' 단계로 판별한다. 통화 중에는 팝업·알림음·진동으로 즉시 안내되며, 사용자가 경고창에서 '보이스피싱 아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통화 종료 후 해당 번호에 '피싱탐지' 라벨이 붙는다. 이라

벨은 최근 기록·검색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벨이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 전 팝업으로 다시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신 화면에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단, 사용자의 연락처나 에이닷 전화 '비즈연락처'에 등록된 공식 번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능은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작동해, 통화 내용 분석부터 경고까지의 전 과정을 단말 내부에서 처리한다. 통화 데이터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별도 저장 없이 탐지가 이루어진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AI 보이스피싱 탐지'는 AOS 단말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에서, iOS에서는 에이닷 앱의 '전화'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설정의 'AI 보안' 메뉴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같은 메뉴에는 'AI 안심차단', 악성 앱의 전화번호 변경 시도를 감지하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AOS 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SKT는 '검색' 화면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피해 신고 기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적용했다.

SKT는 민관 협력과 보안 솔루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11월부터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1년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이통3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도 시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미래인재 양성 AI 루키캠프 신설

비수도권 중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AI 루키 캠프'를 신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내년 2월 개최되며, 미래 소프트웨어·AI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AI 개발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

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술 체험을 넘어 AI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배우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1일 카카오에 따르면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구성, 모델 최적화, 시스템 구현, 윤리 검증까지 AI 기반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아이디어 설계→구현→발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기반 실습을 통

해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카카오 협업 개발자가 참여하는 특강·멘토링으로 산업 변화와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캠프는 총 100명의 비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운영되며, 교육은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속박·식사·교육비 등 모든 비용은 카카오가 부담한다. 지원 자격은 2025학년도 기준 비수도권 중학교 재학생으로, 기본적인 디지털 이해도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누구나 맞춤형 업무용 AI 어시스턴트 제작

네이버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 AI 스튜디오' 선봬

트는 물론, 점심 메뉴 추천이나 메시지 기반 MBTI 분석 등 사내 소통용 기능도 꾸릴 수 있다.

네이버웍스 자체의 AI 기능도 확장됐다. 메일에서는 초안 생성, 문제 변환에 더해 문장 개선, 일정·할 일 추천, 답장 제안 기능이 추가됐다. 드라이브에서는 업로드 파일을 별도 편집 없이 바로 요약하거나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네이버웍스는 일본에서 8년 연속 유료 비즈니스 챗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고객사 59만 곳, 이용자 58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대만 시장으로도 확장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에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손대호 KT 이행1본부 상무(앞줄 왼쪽에서 6번째)와 나성욱 NIA 지능형네트워크단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KT, 코렌 백본망 용량 7Tbps로 확장

기존 대비 2.5배 수준 대역폭 확보
폭증하는 트래픽도 끊김 없이 소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폭증하는 트래픽도 끊김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는 판교·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코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이더넷 전송 속도도 높인다. 국내 최초로 전국망 기반 400Gbps 이더넷을 지원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2026년에는 800Gbps급 이더넷 백본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KT와 NIA는 안정적 망 운영을 위해 산학연 기술 교류와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KOREN 5.0 전송·네트워크 기술세미나'에서는 AI·전송·네트워크 분야 최신 기술과 내년도 고도화 방향이 논의됐다.

/김서현 기자

편의점 성인인증 결제 한번에 끝낸다

이통3사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
미성년자 판매 적발시 증빙제출 가능

용 중인 1500만 명의 고객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등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 제시 과정이 사라지면서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든다.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 판매 적발 시 신분증 확인 이력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 협력해 전국 GS25에 1일부터 도입되며, 비버웍스가 설치한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대형주로 수익률 높였다’… 고액자산가, 안정적 운용 지속

대형주 중심 압축 투자로 수익률↑
회전율 낮춘 안정운용 성과로 연결
반도체·방산 등 주도주 선제 매수
투자 흐름, 안정·우량 자산 선호

보수적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액자산가들이 올해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방산, 조선 섹터 등에 투자했다. 다만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했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전망이 어두운 종목은 피하면서 더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양증권이 올해 1~10월 예탁자산 1만원 이상 고객의 활동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80.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합산 평균 상승률(51.5%)을 크게 웃도는 수준



이다.

1억원 이상 계좌도 평균 70.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5000만~1억원 구간 55.4%, 1000만~5000만원 51.7%로 모든 자산 구간에서 시장 평균을 상회했다. 종합적으로 1000만원 이상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57.3%였다.

◆자산가는 확실한 종목만 샀다

고액 자산 계좌일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자산 계좌들이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지셔닝과 낮은 회전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상위 계좌 대부분은 5개 내외 종목으로 압축된 ‘소수 종목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광범위한 분산 투자보다 대형주·주도주 집중 전략을 통해 강세장에서 상승

폭을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위 계좌는 반도체·방산·조선 등 올해 시장을 주도한 핵심 업종의 대형주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반등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변동성을 견딘 끝에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증권은 짚었다.

대표 보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이 꼽혔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고액 자산 계좌일수록 시장을 이끄는 업종 중심으로 핵심

종목 수를 최소화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자들 따라 사볼까

내년 고액자산가들의 투자흐름도 비슷할 전망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올해 7월 말부터 9월 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커진 것이다.

주식에 대한 믿음도 강했다. 부자들은 앞으로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응답자의 35.5%) 다음으로 금·보석(33.5%)을 꼽았다. 지난해 2위였던 거주용 주택(32.5%)은 3위로 밀려났다. 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중장기 투자처로는 여전히 부동산 인기가 높았다. 상당수 부자는 거주용 주택을 비롯해 빌딩·상가, 토지 등은 중장기 시각에서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들 중 75.5%는 ‘3년 이상’ 해외자산에 투자 중이었다. 선호하는 해외 투자 상품은 해외 주식(47.5%), 외화 예적금·보험·펀드(37.3%), 해외 채권(12.3%) 등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불장에도 IMA發 증권사 양극화 심화

대형사 1조 속출·중소 1000억대 정체
거래대금 급증·리테일 대형 쏠림
IMA·발행어음 인가로 대형구조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등장과 정부의 중시 활성화 대책 등으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9832억원, 순이익은 1조 6761억원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투증권 외에도 키움증권(1조1426억원), 미래에셋증권(1조694억원), 삼성증권(1조451억원), NH투자증권(1조23억원) 등이 3분기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했다. 반면, 자기자본 2조원 이하의 중소형사 대부분은 1000억원대를 넘기지 못했다.

총자산이익률(ROA)에서도 차이는 확연하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ROA는 1.6%였지만 3조원 미만 중



ChatGPT로 생성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양극화’ 관련 이미지.

소형 증권사는 1.0%에 그쳤다. ROA는 기업이 가진 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대형사가 자산도 많지만, 보유 자산을 더 잘 활용해 이익을 잘 냈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IMA 상품이 출시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IMA로 조달한 자금을 IB와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에 나설 수 있어서다.

중소형사는 자기자본을 늘려 추격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해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다. 실제 몇몇 중소형사들은 자기자본 확충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대신증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종투사로 진입했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며 “종투사 확대는 대형사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NCR 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위한 중소형사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투자여력 감소로 사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하은 기자

증시 훈풍에 자산운용사 순익 129% ‘쭉’

수탁고 확대에 운용업 전반 실적 개선
공모는 호조·사모 적자 비율 증가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훈풍을 보이면서 수탁고와 운용보수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505개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 전분기(8555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3억원(128.5%) 늘었다. 영업이익

은 996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74억원(34.8%) 불어났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21.9%를 기록했다.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 약고)은 1868조8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1799조4000억원) 대비 69조4000억원(3.9%) 증가했다. 이중 펀드수탁고는 1226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8조 1000억원(5.0%) 늘었다. 공모펀드·사모 펀드는 각각 43.5%(534조1000억원), 56.5%(692조7000억원)다. 투자일임계 약고는 642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

3000억원(1.8%) 증가했다. 채권형(470조4000억원), 주식형(104조1000억원), 혼합자산(25조원) 순이다.

전체 501개사(업부보고서 미제출자 제외) 중 299곳(59.7%)은 흑자를, 202개사(40.3%)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회사 비율은 전분기(39.5%)와 유사하다. 공모운용사 적자 회사 비율은 14.1%로 전분기 대비 6.4%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모운용사 적자비율은 45.2%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수수료 수익은 1조51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3077억원), 전년 동기 대비 35.5%(3968억원)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운용·수익률 등 전반적 우수 평가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전문적인 상품운용역량을 인정받으며, 4년 연속 우수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기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품 적합성 검증 및 사후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자의 수익률 제고 및 상품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과거 평가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수익률 성과 ▲상품선정 및 변경 절차의 적정성 ▲적립금운용 지원 체계의 적정성 ▲가입자교육의 충실히 측면, 2023년에는 ▲수익률 성과 ▲상품운용역량 ▲교육·정보제공의 충실히 측면, 2024년에는 ▲상품운용역량 ▲교육·정보제공의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금평가 첫 4년 연속 우수

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28개사 '다크페턴' 자가점검·시정 나서

공정위, 인터페이스 자율규약 승인
자진시정시 제재 완화로 뒷바침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실태 점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페턴(온
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
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
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
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
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
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
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
쇼핑, 무신사, 컬리, 카카오, 신세계라
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
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
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
탈퇴 방해 ▲반복간접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페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
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페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
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
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
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
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
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

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
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
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
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페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
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
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
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
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
라인 다크페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액 3조 늘어난 122조

산업부,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3분기까지 투자이행률 68%로 양호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기업들의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
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투자는 순조로
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함께 김
정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
략회의'에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
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
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됐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
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됐다. 10대 제
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2023년 100조
원, 2024년 110조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미정이던 자동
차, 배터리 등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증가했다.

3분기까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
와 같은 68%로 양호한 상황이다. 반도
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속
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전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차지
하는 10대 제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확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견고
한 글로벌 AI 수요 성장세에 발맞춰 H
BM 등 첨단메모리 중심 투자가, 자동
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
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
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전기
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요즘처럼 각국이 기
업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인 시대에 국
내투자는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바로
미터"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당부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등 국내투
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제안해달라"며 "기
업 경영 활동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
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 등 7곳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 기업지원체계 구축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7개 도
(道)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
식품소재·농축·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

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
기 기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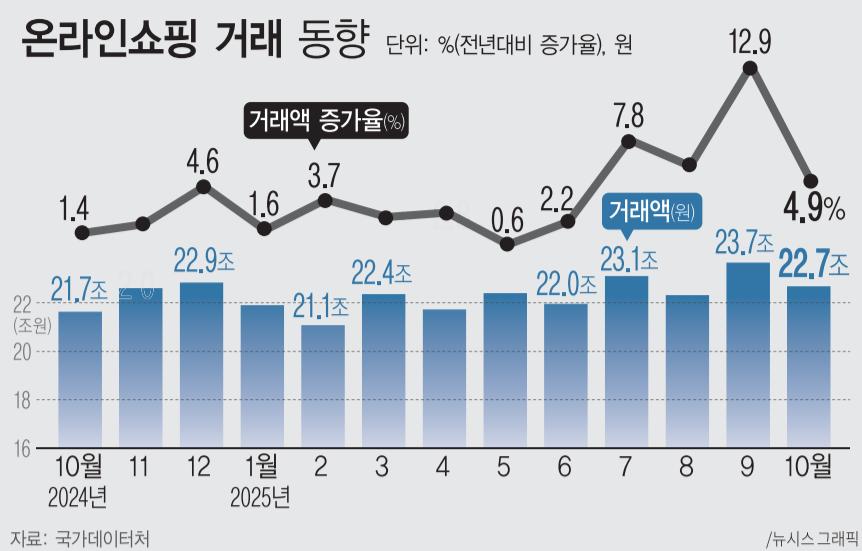
이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
식품소재·농축·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

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
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
가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
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바이
오퍼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온라인 쇼핑액 4.9% ↑ 22.7조 '역대 4위'

데이터처, 10월 온라인 쇼핑동향

작년 7월 '티메프 사태' 소비 위축
지난 7월부터 반등 시작 '회복세'

온라인 쇼핑 거래가 22조 7000억원을
돌파하며 거래액 기준 역대 4위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쿠플서비스
거래액은 20% 넘게 뛰면서 1년 4개
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티메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양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온
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
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
9% 증가한 22조 7103억원으로 집계됐
다. 이는 2017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
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1위는 지난 9월 23조 6994억원이
고, 2위와 3위는 각각 지난 7월 23조
1427억원과 지난해 12월 22조 8696억원
이다.

온라인 쇼핑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티
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소비가 크
게 위축됐지만, 올해 7월부터 반등을 시
작하며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율은 지난해 7
월 6.6%에서 8월 3.6%, 9월 3.4%, 10월
1.4%, 11월 2.0%, 12월 4.6%로 하향곡
선을 그렸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
2%로 부진을 이어가다 7월 들어 증가율
이 7.8%까지 크게 반등했고, 8월에도
6.6% 뛰었다.

특히 9월은 증가율(13.3%)과 금액
(23조 7956억원)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

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10월의 경우,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
(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38.6%), 음·식료품(4.4%) 등에서 증가
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1년 넘게 감
소해왔던 아쿠플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
비 21.5% 뛰어, 지난해 6월(28.3%) 이
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
록했다.

반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22.2%),
서적(-20.5%), 가구(-9.6%), 가방(-9.
5%) 등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음식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민생회복 쿠폰 2차 지급
이 시작됐고, 그에 맞춰 공공 배달앱
쪽에서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됐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관련 혼란 최
근 수입 전기차 쪽에서 인도 물량이 계
속 증가했고, 신형차 출시가 늘어난 점
도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쿠플 서비스는 1년 4개
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티메프 사태로 인한 감소세에서 벗어났
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
(15.7%), 음·식료품(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7조 7143억원
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32.6%), 아쿠플서비스(27.9%), 컴퓨터
및 주변기기(17.7%), 음식서비스
(13.4%) 등에서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ICA 아태 이사 재선

기후위기 등 농업현안 대응 강화 약속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
장을 맡아 왔고, 올해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 이라
는 '농심천심' 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토
대로 ICA 서울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한국농협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
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300여
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다. 10억 명 이
상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농
협중앙회는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서
ICA 이사기관, ICA 아태지역 이사기
관, ICA 농업분야 기구(ICA) 회장기
관을 맡고 있다.

그는 ▲기후위기·식량안보 등 농업
현안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한국농협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경
험 공유 ▲아태지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햄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주)햇터
(주)햇터방송_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_햇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북도, 베트남서 'POST-APEC 세계화 전략' 첫걸음

APEC 성공개최로亞 협력 확대
이철우 도지사, 베트남 공식방문
태풍피해 성금 전달·복구 격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방문하며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첫 해외 행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정을 계기로 교육·청년·산업 분야 국제협력 기반을 동남아로 넓히며 '경북 세계화 전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이 도지사는 29일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찐 수언 쪽수언 당서기에게 태풍 피해 위로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경북도청 전경

'유학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환경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APEC을 계기로 확대된

청년 교류의 의미를 강조하며 경북도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경북 학당과 장학제도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경북 유학 경험이 있는 베트남 동문의 발표도 이어져 현지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3일에는 박닌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재약정은 기존 문화·교육·산업 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의제를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일정도 계속된다. 이 도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크레신(주)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듣고 경영·생산·고용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크레신(주)은 1985년 설립된 국내 음향기기 제조기업으로 2011년 하노이에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 생산거점을 구축했다.

또한 현지 자문위원, 베트남 진출 기업인, 한국 대사관 및 문화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POST-APEC 시대 경북의 대아세안 전략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 유치, 청년 교류,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경북 문화·콘텐츠 수출 방안 등 실질적 협력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순방은 APEC 성공 개최 이후 경북의 대아세안 협력 구상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첫 단계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동남아와의 경제·교육·문화 협력을 지속 확대해 'POST-APEC 세계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며 "베트남 속담에 '한 그루의 나무로는 산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가 모이면 높은 산이 된다'는 말처럼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전지훈련 유치 실적평가 '장려상'

해남군은 2025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내 유일하게 12회 연속 수상이다.

해남군은 16개 전국단위 대회 5만 2000명, 전지훈련 선수단 3만 9000명 등 총 9만 1000명의 스포츠 선수단이 해남을 찾으면서 도내 3번째로 많은 선수단을 유치했다.

2026년부터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남군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2025년 1분기동안 해남군은 전남 인구감소 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76만 6330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칠곡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칠곡군이 성평등 기초부로부터 경북 내 군 단위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이번 지정으로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럭키칠곡 7 드림(Dream)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칠곡 여성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포항시,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개소

2028년까지 총 220억 투입
산업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포항시가 지난 28일 포항산업진흥원에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미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문을 연 실증센터는 2028년까지 총 220억원(국비 14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등)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철강·금속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실증·평가·확산' 단계별 비전에 따라 지역 산업 전반에 AI·스마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

울릉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

울릉군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택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울릉은 지리적 특수성과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지속가능 울릉삶터 건립사업'과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선도 모델로 삼아 향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 정착 기반 강화 ▲지역 주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울릉삶터 전경. /울릉군

으로 추진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주택 문제 해결은 울릉군민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울릉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공공임대 주택 확대로 청년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하동군, LNG 복합발전소 유치 성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심의 통과

하동군은 폐쇄될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대체 시설로 추진한 LNG 복합발전소가 지난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애초 대송산업단지를 LNG 복합발전소 부지로 확보하려 했으나,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역 위원회가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남부발전이 수도권 입지를 검토하자 하동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건립 지점을 전원개발구역인 하동화력 본부 내부로 재조정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부군수 주도 화력 폐쇄 대응 TF팀 가동, 서천호 의원 지원 요청,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공동 대응, 석탄발전소 폐지 영향 분석 용역 발주, 도 단위 워킹 그룹 참여, 주민 대상 설명회, 산업부 직접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군은 LNG 복합발전소 유치로 대형 국책 사업 효과, 고용 창출 및 인구 증가, 건설·운영 33년간 936억원 지원금 등 상당한 경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릉원·동궁과 월지 이어 두 번째

경주시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이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선정에 이어 동일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두 번째 수상한 전국 최초 사례로, 경주의 문화·관광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황리단길은 신라 천년 역사문화권의 길과 골목을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 한 복합 관광 공간으로, 문화유산 기반

스토리텔링, 로컬 브랜드 성장, 보행 친화적 공간 설계 등이 조화를 이루며 MZ 세대가 선호하는 여행지이자 국내 관광객 재방문율이 높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카페와 체험형 매장 등 지역 상권의 자생적 콘텐츠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야간관광까지 활성화돼 '며무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한국 관광의 별'은 관광 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지와 콘텐츠 등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국내 대표 관광평화 제도다. 선정 기준은 ▲방문객 만족도 ▲관광 서비스 품질 ▲지속 가능성 ▲발전 기여도 등이며, 수상자는 매년 국가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창원시

시티투어버스 특별노선 운영

창원시는 겨울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가족 참여형 시티투어버스 특별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해해양공원 보물찾기 겨울 탐험'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 노선은 오후 1시 30분 창원스포츠파크 민남의 광장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진해해양공원으로 이동한 뒤 공원을 탐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한화 김동선, 아워홈 확장… 5년내 급식 매출 3600억 목표

아워홈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부' 인수 프리미엄 급식 등 F&B 공략 식단구성·식품품질 한층 강화

한화그룹 김동선 부사장의 첫 인수합병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며, 한화그룹은 급식 시장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아워홈의 100%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는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부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은 아워홈 미래비전총괄인 김동선 부사장이 부임 이후 추진한 첫 사업으로 아워홈의 사업 역량과 성장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워홈은 올해 상반기부터 고메드갤러리아에 총 1313억원을 출자하며 신세계푸드 인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28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



김동선 아워홈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아워홈은 고메드갤러리아와 함께 프리미엄 급식을 포함한 F&B 서비스 분야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사장은 앞서 5월 열린 아워홈 비전선포식에서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 ▲생산 물류 전처리 효율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 자동화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아워홈의 시장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 합병을 통한 고메드갤러리아의 신설로 연 매출 275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급식, F&B 서비스 사업이 밸류체인에 편입되면서 아워홈의 식음료사업부문 전체 외형은 약 30% 확대될 전망이다. 고메드갤러리아는 2030년까지 단체급식 부문을 매출 36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국내 단체급식 부문 매출 규모는 삼성웰스토리가 가장 크고,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순으로 집계된다. 아워홈과 고메드갤러리아의 시너지가 확대되면 1위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가 높다.

이번 인수로 아워홈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된다. 기존 오피스, 산업체

위주의 기존 포트폴리오에 프리미엄 오피스와 주거단지, 컨벤션 등 고부가 가치 채널로 확장하며, 향후 대형 사업장 및 프리미엄 채널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인수 마침표와 함께 아워홈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역량은 한층 강화됐다"면서 "5월 비전선포식에서 밝힌 2030년 매출 5조원, 영업이익 3000억 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워홈과 고메드갤러리아는 강점의 결합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R&D 역량, 운영 노하우 등이 더해지는 만큼 고메드갤러리아의 식단 구성과 식품의 품질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워홈이 보유한 8개 제조공장과 14개 물류센터 기반 제조·물류 인프라 역시 고메드갤러리아 사업장 운영에 통합 적용된다.

그룹 계열사 간 협업도 기대를 모으

는 부분이다.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화로보티스, 한화 푸드테크의 자동화 기술과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프리미엄다이닝 운영 역량이 접목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설 법인인 고메드갤러리아의 수장은 차기필 대표가 맡는다. 차 대표는 외식·F&B 사업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아워홈 외식 사업부장, 디자인본부장 등을 거쳐 프리미엄 외식 및 라이프스타일 F&B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아워홈 관계자는 "아워홈과 그룹 계열사의 운영·제조·유통·미래기술 역량과 고메드갤러리아의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이 앞으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 우위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울렛 가격서 30% 추가할인 '더 블랙위크'

롯데아울렛, 5~7일 올해 마지막 세일 전점포서 300여개 브랜드 행사참여

롯데아울렛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인 '더 블랙위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점포에서 총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아울렛 가격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럭셔리, 스포츠, 리빙 등 전 상품군이 참여해 연말 쇼핑 수요를 공략한다.

특히 영하권 추위에 맞춰 겨울 아우터를 중점적으로 할인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다운류를 최대 70% 할인해 단독 특가로 선보이며, 듀베티카와 송지오옴므는 패딩을 최대 60% 할인한다. 블랙야크, 노르디스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도 최대 5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드로와 마쥬 등에서는 코트류를 할인가에 내놓는다.

시즌오프 행사도 함께 열린다. 비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전경.

커, 톰그레이하운드 등 컨템포러리 브랜드는 F/W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하며, 바비, 닉스, 헤리스 등 LF 계열 브랜드는 행사 기간 1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점포별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파주점과 김해점은 영화 위키드 테마의 트리 전시와 라이팅 쇼를 진행한다. 의왕점은 캐치! 티니

핑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15m 초대형 트리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광명점에서는 레고 헐리데이 팝업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아울렛 김현영 마케팅팀 팀장은 "연 이은 기습 한파로 12월 초부터 겨울 아우터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마지막 세일인 만큼 아우터 특기를 비롯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으나 많은 관심 바랍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애경 '에이지투웨니스' 英 K-뷰티숍 입점

런던·카디프 등 11곳, 연내 14곳 확대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애이지 투웨니스(AGE20'S)가 영국내 대표 K 뷰티숍 '퓨어서울'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1일 밝혔다.

퓨어서울은 영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K뷰티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애이지투웨니스는 런던, 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 있는 퓨어서울 전지점 11곳에 입점했고 올해 안에 추가 개점 예정인 지점을 포함하면 총 14곳으로 입점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브랜드 대표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현지 소비자 맞춤형으로 선보인다. 20가지 쉐이드 제품을 공개하며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영국 퓨어서울에 입점한 '루니'도 메이크업 브랜드로서 피부색이 다양한 다인종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 인기 제품 '롱래스팅 팀 컨실러'의 쉐이드를 기존 6가지에서 20가지로 세분화해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유럽연합 및 영국 내 화장품 유통을 위한 필수 등록 제도인 유럽 화장품 인증(CPNC), 영국 화장품 인증(SCPN) 등을 취득해 제품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퓨어서울 입점은 통해 영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며 향후 영국을 넘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컬리, 굴·대방어 등 수산물 최대 33%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겨울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굴, 대방어 등 겨울 대표 수산물 390여 개를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주요 상품으로는 삼삼물산통영생굴이 있다. 통영 청정 해역에서 자란 생굴 중 한입에 먹기 좋은 중굴 사이즈를 엄선했다. 물 온도를 7도로 유지하고 여과 및 살균을 거친 해수로 3번 이상 세척해 신선함을 높였다. 포트럭 숙성 대방어회도 선보인다. 7~8kg 가량의 대방어만 선별해 20시간 저온 숙성을 거쳐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살렸다. /손종욱 기자

하이트진로, 3일부터 한정수량 판매

하이트진로가 퓨린과 칼로리를 동시에 낮춘 기능성 발포주 '필라이트 더블 컷(FiLite Double Cut)'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23년 업계 최초로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을 선보인 뒤 단기간에 완판 됐으며, 이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다시 선보이게 됐다. '필라이트 더블 컷' 출시로 가정용 발포주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통풍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보다 약 8%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다. 두 성분을 낮추면서도 필라이트 고유의 'Fresh 저온숙성 공법'을 적용해 시원하고 상쾌한 목 넘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3.5%로 350ml 캔 제품 1종만 출시되며, 3일부터 전국 슈퍼 및 대형마트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출고가 역시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보다 약 8%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함께하면서 시작된 하이트진로의 진심 어린 도전이 올해 '더블 컷'이라는 확장된 기능으로 이어졌다"며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상쾌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대상, 유럽 식품첨가물박람회 참가

천연 조미소재 등 3종 제품 선보여

대상이 글로벌 소재 부문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해 오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식품첨가물박람회(FIE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FIE'는 식품 원료 및 첨가물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박람회로, 올해는 약 135개국에서 1550개가 넘는 기업과 전문 바이어 등 2만4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이번 박람회에서 천연 조미소재, 에멀레이드, 미세조류 등 총 3종의 스페셜티(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대상만의 발효 기술을 알려 해외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천연 조미소재 '디세이버리(Dsavory)' 소재를 적용한 너겟, 수프 등이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제야이나 건



오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식품첨가물박람회(FIE 2025)'에 참가한 대상 부스.

강기능식품,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L-아르기닌, L-글루타민, L-시트룰린 등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6종도 함께 전시한다. 미세조류 기반의 식물성 단백질 소재 그린 클로렐라와 골드렐라, 화이트 클로렐라 등과, 기름과 물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 제품의 질감과 풍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변성전분 '에멀레이드(EMULAI D)'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 송도 제3캠퍼스 조성… 차세대 모달리티 강화

7조 투입해 송도 11공구 부지 매입
2030년까지 1만명 고용·12조 효과
기준 캠퍼스와 연계해 생산 효율↑
CGT·백신·펩타이드·ADC 등 확대
2032년까지 8공장으로 생산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조원이 투입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조격자 생산 역량을 갖춘 핵심 기지를 확충하고,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광범위한 모달리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을 맺었다. 부지 규모는 18만7427m²이며, 매입 대금은 2487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부지에 제3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3 캠퍼스 조성에는 총 7조원 가량이 투입되며 기대 효과는 오는 2030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과 약 12조원 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제3캠퍼스는 제1캠퍼스, 제2캠퍼스 등과 인접해 있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차별화 기술 등 의약품 제조 전반에서 기준 캠퍼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 효율 극대화, 고객 프로젝트 리드 타임 단축,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항체 의약품을 비롯해 최근 CDMO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 백신, 펩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이 마련된다.

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CDMO 사업을 mRNA, 항체·약물 접합체(ADC), 오가노이드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약품 생산의 경우, 올해 초부터 전용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전용 시설은 4층 구조로 설계됐으며 500L 규모의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을 갖췄다.

특히 기존 항체 의약품을 비롯해 최근 CDMO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부터 접합까지 개발 및 생산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7년 1분기에는 ADC 완제의약품 (DP) 전용 라인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제1캠퍼스의 1~4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제2캠퍼스의 5공장도 램프업을 단계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량은 78만4000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아울러 오는 2032년까지 6~8공장으로 설비를 확대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32만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 조격자 생산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인적 분할을 통해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 진출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톱 바이오 기업'이라는 회사의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로즈잼' 선보여

콜튼 라인 확장·민스코 협업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신제품으로 '로즈잼'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로즈잼은 글로벌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뷰트 립 톤 핑크 색상으로 발색에 따라 콜튼과 뉴트럴 톤 모두에 활용 가능하다. 또 프랑스식 디저트 '이스파한'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 더해졌다.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로즈잼'은 한국을 시작으로 세포라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특히 라네즈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존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의 제품군을 '콜튼 팔레트'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제품 개발을 협력했다. 민스코는 유튜브에서 7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셀트리온, 美 PBM 등재로 '골질환 치료제' 경쟁력 입증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처방집 등재
2026년 선호약 지위로 경쟁력 강화
PBM·오픈마켓 공략해 시장 확대

셀트리온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 관리업체(PBM) 중 한 곳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에 등재 적용되며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까지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데노수맙 성분의 바이오시밀러 기준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 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셀트리온

데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만 유일하게 등재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제약 시장에서 핵심 영향력을 가진 3대 PBM에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 진과 환자의 제품 신뢰도 및 처방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다른 두 곳의 대형 PBM 과도 처방집 등재 계약 체결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각 PBM들이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에서 오센벨트에 대한 등재 계약은 이미 완료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스토보클로의 추가 등재 계약만 남은 상태다.

PBM 계약과 별개로 셀트리온은 미국 데노수맙 시장에서 약 30% 규모를 차지하는 '오픈 마켓'도 집중 공략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오픈 마켓은 보험사나 PBM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자체 영업력과 제품 경쟁력이

약하면 공략하기 힘든 채널"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미국법인 토마스 누스비켈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의 대형 PBM 등재가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미국 골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며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면서 제품 영향력 확대를 통한 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라네즈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신제품 '로즈잼' /아모레퍼시픽.

CGV

아바타 신작 기술관 상영

SCREENX·4DX로 몰입감 강화

CGV가 12월에 시네마틱 경험을 극대화할 '아바타: 불과 재'를 비롯해 액션·애니메이션·클래식 명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기술 특별관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12월 17일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CGV 기술 특별관 전 포맷으로 상영한다. SCREENX에서는 판도라의 확장된 세계관과 경이로운 비주얼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판도라의 광활한 경관과 새로운 '재'의 부족과의 유품과 바다를 넘나드는 공중 전투 장면이 양옆의 스크린으로 펼쳐져 실제 전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4DX에서는 격렬한 전투와 비행 액션을 모션 체어의 진동과 바람·물·공기 등의 효과와 함께 체감할 수 있으며, 판도라의 다양한 환경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정하 기자 seilee@

SPC, 말레이시아 쉐이크쉑 4호점 오픈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 KL서 선봬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쉐이크쉑 4호점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KL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번화가인 부킷빈탕(Bukit Bintang)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쿠알라룸푸르 1층에 160석 규모로 자리 잡았다.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는 700여 개의 패션·뷰티·다이닝 매장이 입점한 말레이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으로 꼽힌다.

쉐이크쉑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점에서는 매장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프랑스식 베아르네즈 소스와 허브 버터,

필리밀리, 올리브영 어워즈 미용소품 1·2위

수상기념 업기떡볶이 협업 한정판 선봬

CJ올리브영은 뷰티풀 전문 브랜드 필리밀리가 '2025 올리브영 어워즈' 미용소품 부문에서 1·2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지난 1년간의 1억 8000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상품을 부문별로 선정하는 연말 결산 행사다.

필리밀리 대표 제품인 '히팅뷰러 와이드핏'과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5종)은 각각 미용소품 1위, 2위에 올랐다. 히팅뷰러는 속눈썹 뿐만 아니라 턴만하게 컬링을 잡아주는 기능을 구현한 소품이다.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은 메이크업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뷰티를 구

성됐고 실용성, 완성도, 가성비 등을 모두 갖췄다.

필리밀리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며 동대문 업기떡볶이와 협업한 이색 한정판을 선보인다. 파티 음식을 대표하는 업기떡볶이와 파티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필리밀리가 만나 고객에게 풍성한 연말 파티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선 '필리밀리 히팅뷰러 와이드핏' 기획세트에는 노글루 포인트 속눈썹, 동대문 업기떡볶이 공식 캐릭터 여비더 기 스티커 등을 담았다. '필리밀리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5종)'은 레드 색상 케이스로 새롭게 제작하고, 메주리알에 소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적용한 퍼프를 증정품으로 제공한다.

/이정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농어촌공사, '亞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세화마을협동조합과 함께 '2025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국제연합(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한국경관학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수상작인 '숨비, 바다가 숨 쉬는 곳-제주 세화항'은 경관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어촌에 문화와 경제의 숨결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

삼성, 관계사 23곳과 연말 이웃사랑성금 500억 전달

올해까지 27년 동안 나눔 실천
임직원 자발적 기부금도 포함

삼성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이웃돕기 나눔을 27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삼성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1999년 처음 연말 성금을 기탁한 이후 삼성은 올해까지 27년 동안 연말 이웃돕기 나눔을 지속해 왔다.

삼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삼성의 꾸준한 기여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



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에서 기념식에서 제현웅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서운영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종찬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 기획, 에스원 등 총 23개 관계사가 참여해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성금은 ▲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된 '기부약정 캠페인'을 통해 각자가 2026년에 참여할 CSR 프로그

램과 기부액을 선택했다.

기부 약정액은 내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되며 회사도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기부한다. 임직원들은 금전 기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은 유니세프, 푸른나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7개 NGO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CSR 달

력 33만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달력에는 삼성이 NGO들과 함께 운영 중인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학교폭력 예방?치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등 주요 CSR 활동들의 사진이 담겼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나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NGO와 함께 달력을 제작해왔다.

달력 구매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등 14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삼성은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있다"며 "연말 성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 시행

한국벤처투자(KVIC)가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해외투자를 위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KVIC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벤처투자외환센터(K-Invest Hub)' 개소식을 열고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LG전자, 유럽 '최고의 TV 브랜드' 선정

유로컨슈머 어워드 2025
LG 올레드 TV 기술력 인정

LG전자가 유럽 소비자 평가에서 '최고의 TV 브랜드'로 선정되며 올레드 TV의 기술력, 소비자 만족도, 시장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재인증했다.

LG전자는 '유로컨슈머 어워드(Euroconsumers Awards) 2025'에서 TV 부문 '최고의 TV 브랜드(Best Brand, TV)'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카테고리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 가운데 LG전자가 TV 부문 첫 수상 기업이 됐다.

유로컨슈머 어워드는 미국 컨슈머 리포트, 영국 위치 등 세계 소비자단체 협의체 ICRT 소속 37개 기관 중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등 5개국 소비자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LG전자는 전문가 테스



유럽 현지 매장에 LG 올레드 TV가 진열된 모습. /LG전자

트 결과와 유럽 전역에서 조사한 소비자 만족도·신뢰도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올레드 TV의 기술력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2013년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12년간 축적된 자발광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며, 올해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다. 2021년까지 500만 대 판매 이후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정희준 기자 nauta@

현대차, 2026 카운트다운 캠페인 시작

'현대 위시 테일' 진행

현대자동차는 2026년 카운트다운 캠페인 '현대 위시 테일(Hyundai Wish Tail)'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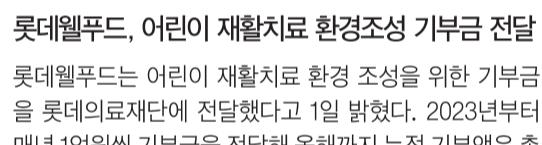
현대차 카운트다운 캠페인은 2011년 처음 시작된 연말 행사로 새해를 앞두고 희망과 감동을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현대차의 대표 연말 행사다. 올해는 15회째를 맞아 '소망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를 주제로 악뮤(AKMU) 이찬혁과 함께 동화 콘셉트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캠페인의 시작으로 1일 캠페인 무비 '더 스노우위시맨(The Snowish Man)'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 캠페인 무비는 첫눈에 담긴 소망으로 탄생한 '스노우위시맨(Snowish

h Man)'과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로봇 '스팟(Spot)'이 사람들의 새해 소망을 이뤄주는 내용을 담은 10분 분량의 판타지 영상이다. 본편은 오는 10일 현대차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되며 롯데시네마에서 스페셜 상영 이벤트로 진행된다.

현대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연하장 '위시카드(Wish Card)' 이벤트도 운영해 고객이 공식 SNS 계정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31일 자정에는 캠페인의 하이라이트인 '위시 카운트다운 필름(Wish Countdown Film)'이 공개된다. 1500 대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 아트워크'를 통해 현대차의 미래 기술 비전을 전달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월푸드, 어린이 재활치료 환경조성 기부금 전달

롯데월푸드는 어린이 재활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롯데의료재단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부터 매년 1억원씩 기부금을 전달해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3억원에 달한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6일 경기 하남시 보바스병원에서 위세량 롯데월푸드 커뮤니케이션부문장(왼쪽), 윤연중 하남 보바스병원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월푸드



BBQ, 올리버스와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기부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29일 올리버스와 함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 정동면 일대 가구에 연탄 1000장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올리버스 단원들을 비롯해 BBQ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난방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연탄을 나르고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BBQ



흥국화재, '이웃사랑의 집'서김장 나눔 봉사활동

흥국화재는 지난달 29일 부산 진구 개금동 무료급식소 '이웃사랑의 집'에서 연말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이옥천 이웃사랑의집(무료급식소) 회장, 김두환 흥국화재 장기보상2센터 센터장, 김정애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화재

한진, ESG평가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

친환경 물류 인프라·사회적 책임

한진이 2025년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한진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환경 부문 A등급, 사회 부문 A등급, 지배구조 부문 B+ 등급으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KCGS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자문과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제공하는 대표 전문기관으로 매년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한다. 한진이 3년 연속 달성한 통합 A등급은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쟁력을 의미한다. 한진은 ESG 보고서 공시

및 KCGS에 제출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국내 최상위권의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인정적으로 입증했다.

한진은 친환경 물류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책임 이행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진은 전국 17개 물류센터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1000대의 전기차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물류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진은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과 협약을 맺고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셀러를 위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인 '원클리'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북도와 산림녹화조성사업 '맞손'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경상북도와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산림녹화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지난 28일 경상북도청에서 체결하고 산불 피해 지역 복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3월 조성

인사

◆ 교보증권 ◇지점장 승진 △여의도지점 김백준 △서초금융센터 안남희 △분당지점 이기준 △안산지점 박민규 △대구금융센터 황성훈 ◇지점장 이동 △여의중앙금융센터 임주희 △영업부 해승욱 △명동지점 정완종 △시당동지점 김현석 △일산지점 김상균 △부평지점 조일구 △서문지점 이용민

한 산불피해 지원 5억 원의 기부금이 앞으로 해당지역 산림복원 사업에 본격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경상북도는 영덕군 '별파랑 공원'을 산림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산불 피해면적 49.3ha 중 3.8ha 규모에 청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1만 5100주를 내년 11월까지 식재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부 음

◆ 박창민(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전 한국주택협회장)씨 별세, 배희숙씨 남편 상, 박현재·용준씨 부친상, 이우리·예솔지씨 시부상, 박시연씨 조부상=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40분, 장지 하늘 문주모공원. 02-3010-2000



관객 평점 9.9, 120만 독자의 선택
웃음 빵! 재미 팽! 가슴 뭉클!! 올 겨울 꼭 봐야 할 뮤지컬!



뮤지컬

가슴 들어주는 빵 아이들

20개월 이상 관람가

2026.01.03~02.08 능동상상나라극장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음CIL 마케팅 토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예매 NOL ticket 문의 02-764-9102

쿠팡이 뺏긴 개인정보, AI가 활용한다면?



윤 희 정

잠시 쉼표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흡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떻게 도둑맞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다. 에디슨이 여기서 말한 ‘그’는 전기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다. 그는 렌트 겐에게는 X레이 기술을, 리 드 포레스트에게는 진공관 앰프 기술을, 굴리엘모 마르코니에게는 라디오 기술을 빼앗겼지만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약 83%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를 이미 한 세기 전에 간파했나보다. 에디슨의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쿠팡의 고객정보 3370만여건이 유출된 것이 알려져 정부와 기업, 고객 등 그야말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이번 사고로 정부는 또 다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

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사고 당사자인 쿠팡엔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의 경쟁업체들은 자사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이커머스 사업 협력에 나서고 있는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번 범죄 혐의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으로 알려지자, 혹여나 자사 사업과 연관되거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반 소비자, 우리 국민이다. 이미 이 사건에 앞서 SK텔레콤, 롯데카드, KT 등 굵직한 대기업들의 어이 없는 대처로 개인정보가 탈탈털려 더 이상 털릴 정보도 없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을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탈취 사건은 우리 기업들의 보안대처 체계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에디슨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보안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정보보호에 충실히 해야 할 기업들은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짐새도 채지 못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이 내부 관리 소홀함에도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에 통과하는 것에만 급급해 수백, 수천억원을 썼다. 그 덕에 각종 인증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사의 정보가 줄줄 새는 것은 알지 못했다.

사후 대응 부실도 똑 같은 패턴이다. 과거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쿠팡도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둑을 막지는 못해도 뭐가 도둑맞았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그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의 보안 수준이다.

2026년을 목전에 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다. 너도나도 인공지능 전환(AX)을 외치고 있다. 기업의 업무 환경이 AI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사이버침해도 AI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범죄자들이 탈취해간 개인정보가 단순한 데이터였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AI가 이를 학습해 소비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업 내부 시스템 보안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yhj@metroseoul.co.kr

환율 상승 범인 = ‘쿨’한 투자자?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집은 포기했고 월급 때서 미국 우랑주 사는 게 유일한 재테크인데, 이제는 환율 올랐다고 서학개미 탓이 라니요?”라는 글이 돌았다.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연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외투자 쿨리프’를 지적했다.

숫자만 보면 틀린 지적은 아니다. 올해 1~3분기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달러로 92% 늘었고, 개인투자자도 74% 증가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34%, 개인은 23%. 10~11월 개인 순매수는 123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

이다. ‘쿨리프’이라는 표현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분들이 해외투자를 ‘쿨하잖아요’라며 한다”고 말한 뒤 커뮤니티엔 “누가 멋 부리려고 미국 주식 사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여기에 ‘가짜 담화문’까지 퍼졌다.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세를 40%로 올리고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명백한 허위”라며 진화했지만, 투자자들은 “실제 의중을 흘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이 이런 ‘행동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달러인덱스는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원화는 1400원대 중반에 고착돼 있고, 코스피는 9월 이후 40% 넘게 올랐는데도 원화 약세는 이어진다. 엔화 급락, 한·미 금리차,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

대미 투자 협상 우려 등 구조적 요인이 훨씬 크다. 해외투자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전문가들도 “달러 수급 요인이지만 그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외환보유액을 웃도는 해외자산을 쌓았고, 개인은 저성장·巴斯권 증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했다. 오랜 불신의 ‘결과’를 두고 이제 와서 환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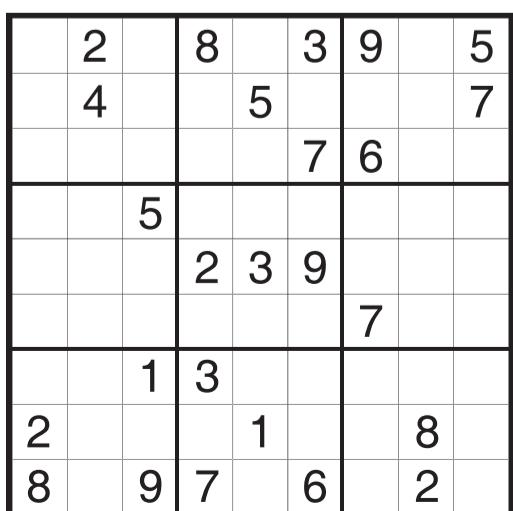
그럼에도 정부의 해법은 다시 해외투자 자로 향한다. 기재부·한은·복지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연금의 해외투자 프레임워크를 손보려 하고, 환해지 전략도 더 유연하게 쓰자는 논의가 나온다. 손대기 쉬운 부문부터 조정하겠다는 접근근이다.

하지만 서학개미에게 해외투자는 ‘쿨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zelkov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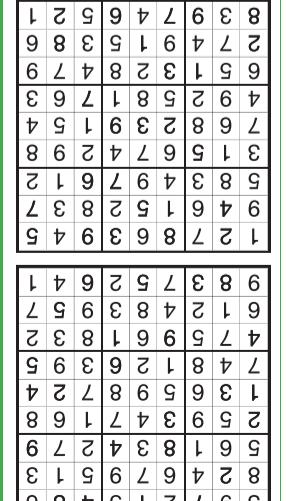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0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8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60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 72년생 이성을 만나 모아 운비상금이 바닥이 난다. 84년생 사돈 앞에서 며느리 불평보다는.



37년생 금전거래는 차리 주는 것이 좋다. 49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61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73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5년생 게으르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3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50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62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74년생 출근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86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39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 51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63년생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75년생 상대의 손실로 인해 나도 손실이니 도와라. 87년생 우물을 찾았는데 뉘레박이 없으니 딥답하다.



4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52년생 종신토록 양보해도 백 보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64년생 실현 기능성 없는 이상론에 빠지지 말자. 76년생 모든 것을 흔자 말으니 피곤. 88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가 필요할텐데.



4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53년생 아이디어로 이름을 얻는다. 65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77년생 뒤늦은 도박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 89년생 길 떠나는데 신발끈이 풀리니 잠시 자체.



42년생 재물 앞에서 감정질체를 잘해야 한다. 54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6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만 안다고 했다. 78년생 부모님의 지갑도 생각해 줘라. 90년생 편하고 헌가로운 일은 찾아보자.



43년생 오늘부터는 기술을 배우는 데 노력해보자. 55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67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79년생 일없이 허망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9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할 것.



44년생 타인의 이성에 유혹됨을 벗어나야 할 터. 5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8년생 영업으로 종일 꾸준한 이득이 온다. 80년생 경쟁자가 있지만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 92년생 능력에 부치는 일은 맞지를 말도록.



45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 57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9년생 달리기만 하면 앞밖에 보지 못한다. 81년생 지인에게 손의 끈을 너무 짚지다 손실. 93년생 절음은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 힐랄 것.



46년생 운세에 맞춰 재물을 신중하게 써야 할 것. 58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70년생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날. 82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짧은 날이니 즐겁게. 94년생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47년생 순종에 뜻단비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9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71년생 초행길의 산행은 조심해야. 8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9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훼어야 보배라고 했으니 실력을.



김상회의四季

기도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희망을 품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이나 신령에게 소원을 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닿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 힘을 알기에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과 연결되고, 개인의 삶과 집안에 복을 부르며 재앙은 소멸하는 효험이 있다. 막힌 운을 열어주고 좋은 인연을 부르며, 집안의 화평과 번영을 약속하는 열쇠이다. 기도는 무엇보다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혼란에 빠졌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평온과 긍정의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복된 운세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운세가 찾아가는 건 아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간다.

기도는 바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만사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복은 마음이 부르면 온다. 기도로 마음이 평온해지면 복이 그 기운을 타고 들어온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길을 잊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집안을 위한 기도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화목을 불러온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화평이니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할 때, 집안의 악운이나 불길한 기운을 소멸시키니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기도의 힘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다툼이나 불화, 재난을 사전에 막아준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복덕을 쌓는 유산이 되고, 자식의 기도는 부모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기도의 힘이 살아있는 집은 재물운과 명예운을 자석처럼 불러들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04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08 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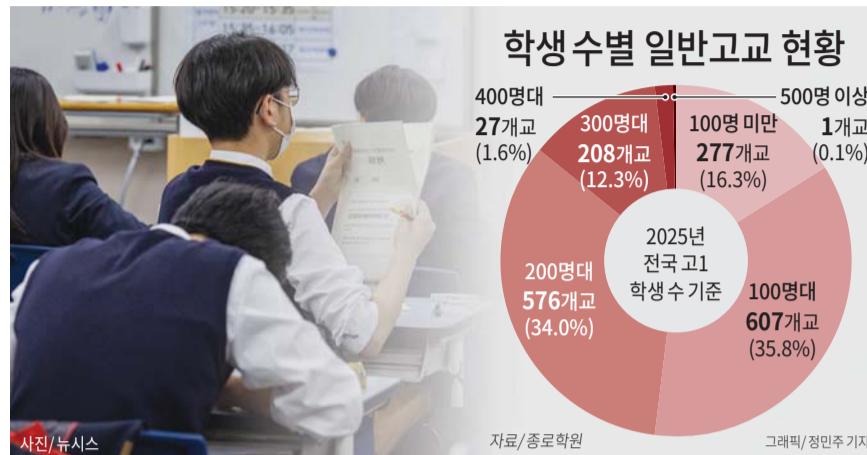
내신관리 힘든 특목고·자사고 지고 학점제·학생 규모 큰 일반고 뜬다

2026학년 고교선택 흐름 바뀌어
학점제 전면 적용, 내신 5등급제에
학생 수, 학점제 운영 역량 변수로

2026학년도 고교 입시를 앞두고 고교 선택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특정 특목고·자사고 쏠림보다 내신 관리,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학생 수 규모 등 현실적 기준을 우선하는 '실리형 선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이 맞물리며 고교 유형별 경쟁력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종로학원 등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는 대입제도 개편 2년차로 학생·학부모 관심이 내신 부담과 학점제 유불리에 집중되고 있다.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수강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 산출에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고, 내신 5등급제가 정착되면서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실제 고교 입학 후 고1 전출 비율은 ▲지역자사고 6.7% ▲외고 3.6% ▲일반고 2.3%로,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보다 높다. 전출의 핵심 배경이 내신 불리함으로 해석되면서 상위권 중심 특목자사고 쏠림이



예년만큼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고교 선택 기준도 '브랜드'에서 '유불리 분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가 많고, 학점제 선택과목이 넓게 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선호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내이사를 계획 중인 고1학부모 이은진 씨는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다 보니 학생 수가 많아야 선택 과목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2부터는 내신 영향이 더 커지는 만큼,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목·자사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 규모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춘 일

반고·자공고에 지원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 이미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도 단순 유형 선호보다는 학교 규모, 내신 관리 환경 등을 종합한 '실리형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고교 체계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특목·자사고 중심 구조는 약화되는 대신, 학생 수가 많고 학점제 운영이 가능한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소규모 학교나 선택과목 개설 여건이 약한 학교는 경쟁력 저하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교 선택이 '브랜드 선택'에서 '유불리 분석'으로 옮겨가며, 한국 고교 체계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metroseoul.co.kr

백사마을, 16년만에 첫 삽... 명품 주거단지로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
최고 35층, 3178세대 공동주택 조성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뗐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해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서울 백사마을 조감도. /서울시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주민의 염원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발정비 구역 지정 이후 16년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세대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분양·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통합개발과 소셜미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켜켜이 쌓인 곳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행기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장기간 망명 신청 중단할 수도...시한 없어"

▲캘리포니아 경찰, 가족파티서 어린이등 4명 살해한 총격범 공개수배

/사진 뉴시스

수도권·에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L7

36% 최저

▲中, 상업용 우주항공 전담부서 설립...중국판

'스페이스X' 키우나

36% 최저

▲中, 상업용 우주항공 전담부서 설립...중국판

'스페이스X' 키우나

▲中인민은행 "가상화폐는 불법"...스테이블코인 단속 강화

▲이라크 총리- 미 시리아특사 회담...중동 평화

와 확전 방지 논의

'교육인권주간' 운영... 학교 존중문화 확산

서울교육청, 세계인권선언의 날 맞아
2주간 인권교육 실질적 내실화 도모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오는 10일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서울교육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으로 이어가는 학교'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을 학교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인권주간은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종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교육의 실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교육인권주간 홍보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계기 교육 ▲모두의 인권 특강(사람이 사는 미술관) ▲서울교육인권주간 인권레터(교육공동체 대상 인권교육 실천사례와

퀴즈 등이 담긴 인권레터 발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발행 ▲차별없는 학교, 함께 만드는 인권 이야기(교육감과 함께하는 인권톡) ▲정감대화(교육감과 학생인권 관계자 정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교육공동체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교육인권주간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존중과 배려가 실천되는 인권친화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하남시, 4개 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집행

기업유치 본격화... 총 9500만원 지원

하남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투자유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는 기업유치 정책을 본격화하며, 처음으로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집행해 연세하남병원, 성원애드피아, 보바스병원, 쿠유티지 4개 기업에 총 9,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에서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가 지급된 첫 사례로, 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를 실시했다. 하남시에 신설·이전·확장을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는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이 적용됐으며, 투자 규모, 고용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해 4개 기업이 최종 선정 됐다. 이에 따라 ▲연세하남병원과 성원애드피아는 각 3000만 원, ▲보바스병원은 2000만 원, ▲쿠유티지는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연세하남병원·성원애드피아·쿠유티지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 생태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됐으며, 보바스병원은 하남시민 고용 확대 실적이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하남시는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하고, 기업별 전담 PM을 지정해 인·허가, 심의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원스톱 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 더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까지 결합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12월 2일 (火)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12월 2일 (火)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1 ~ 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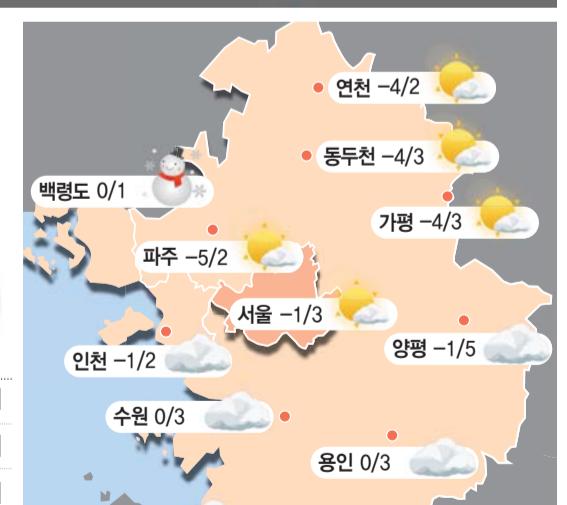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뜰 / 07:29 | 해짐 / 17: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188

▲트럼프 "장기간 망명 신청 중단할 수도...시한 없어"

▲캘리포니아 경찰, 가족파티서 어린이등 4명 살해한 총격범 공개수배

/사진 뉴시스

수도권·에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L7

36% 최저

▲中, 상업용 우주항공 전담부서 설립...중국판

'스페이스X' 키우나

▲中인민은행 "가상화폐는 불법"...스테이블코인

단속 강화

▲이라크 총리- 미 시리아특사 회담...중동 평화

와 확전 방지 논의

한화 김동선
아워홀 확장
매출 3600억 목표

L1

삼성바이오
송도 제3캠퍼스
조성 계획

L2



유기견 보호하고, 지역과 공존까지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의 길

이마트는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상생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발적인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년째 유기동물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마트는 단순히 브랜드들과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도 동참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을 그려 나가고 있다.



/유튜이미지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이마트

◆ 단순 기부 넘어 '가족' 찾아주는 여성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몰리스(Molly's)'가 보여주는 행보는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는 다르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입양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이마트는 파트너사인 하림펫푸드와의 기부 합동으로 '더리얼이 몰리스와 함께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입양 캠페인을 전개하며 새로운 입양 문화를 선도했다.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가족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고양 등 주요 몰리스 매장에는 유기견과 유기묘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가 고객을 맞이했다. 쇼핑을 하러 온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기동물의 사연을 접하고, 등신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입양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연결 고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유기동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은 입양 절차의 진정성이다. 무분별한 입양과 파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 봉사활동 참여, 대면 상담 등 깊은 신중한 검증 과정을 도입했다. 대신 이 과정을 통해 새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림펫푸드는 1년간 먹일 수 있는 프리미엄 사료와 간식을, 몰리스는 제휴 병원과 미용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반려문화의 본질을 기업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범 사례다.

◆ 밥그릇 채우는 따뜻한 연대

입양 캠페인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지속적인 사료 기부와 봉사활동은 당장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들의 현재를 지키는 활동이다. 이마트와 하림펫푸드는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와 손잡고 꾸준히 온정을 나누고 있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흑한기를 앞두고 사료 2톤을 쾌적해 보호소의 월동 준비를 도운 데 이어 최근에는 3000만원 상당의 사료를

반려동물 브랜드 '몰리스' 동물보호 앞장
하림펫푸드와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파양 악순환 끊기 위해 검증과정 거쳐
유기동물 새 가족에 사료 제공 등 지원

3년간 유기동물 보호소 찾아 봉사활동
반려동물과 시민안전 지키는 캠페인도
단발성 이벤트 아닌 지속적인 동행 약속

추가로 기부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 이마트와 하림펫푸드 임직원 40여 명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을 찾았다.

'레인보우 쉼터'를 찾은 임직원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견사를 청소하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했다. 좁은 케이지가 세상의 전부였던 유기견들과 산책을 하며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임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은 기업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몰리스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 산책하며 동네 지켜요

이마트의 상생은 동물권을 넘어 시민 사회의 안전으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8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작한 '당신을 위한 폴(몰)리스라인' 캠페인은 '반려인 1000만 시대'의 특성을 포착한 아이디어다.

이마트는 매일 동네 구석구석을 산책하는 반려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시민 순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브랜드명 '몰리스(Molly's)'를 합쳐 만든 위트 있는 캠페인 명칭 아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서울 지역 26개 이마트 점포에서는 112 신고 등 치안 활동 동참을 서약한 시민들에게 빛 반사재질의 '폴리스라인' 미니 키링과 야광 슈즈 참 1만5000개를 배포했다. 이 굿즈들은 야간 산책 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시에, 이들이 '우리 동네 지킴이'임을 알리는 표식이 된다. 녹색어머니회와 반려견 순찰대원들에게 전달된 이 작은 키링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등 불이자 범죄를 감시하는 안전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마트 손천식 캠플라이언스 담당 전무는 이



이마트 몰리스와 하림펫푸드 임직원들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해 사료를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마트 몰리스가 하림펫푸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마트 몰리스가 지난 8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당신을 위한 폴(몰)리스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베스트셀러 상품은 유기견의 일용할 양식이 되며, 지역 거점 점포는 시민 안전의 전초기지가 된다.

몰리스의 활동에 이마트 박재형 패션&리빙 담당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마트는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한국 타구, 세계청소년선수권서 은메달 1개·동메달 6개 획득

▲ 미국 매체, 김하성 FA 타자 8위 평가…“주전 유격수로 보는 구단 있을 것”

/사진 뉴시스

▲ '황희찬 결장' 울버햄튼 EPL 6연패·개막 13경기 무승 최하위

▲ 프로야구 삼성, MLB 경력 있는 우완 투수 매닝 영입

▲ '노벨문학상'의 힘… '소년이 온다' 2년 연속 올해 베스트셀러 1위

▲ 좁은 지역 단위 기후까지 읽는다… 기상청, 500m 격자 기후자료 개방